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방향을 모색한다

- 일시 : 2014년 12월 15일 (월) 19:00
- 장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목 차

■ 토론회3.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방향을 모색한다

• 보도자료	-----	4
• 발제: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방안		
/ 이강은 (비전코디 대표)	-----	6
• 토론1: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	24
• 토론2: 김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29
• 토론3: 김진훈 (숭의여자고등학교 교사)	-----	32
• 녹취록	-----	36

토론회 3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방향을 모색한다**

일시	12월 15일 (월) 저녁 7시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발제	이강은 (비전코디 대표)
토론	1.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 기제지원센터 소장) 2. 김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3. 김진훈 (송의여자고등학교 교사)

보도자료



좋은교사운동은 2014년 12월 15일 저녁 7시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 방향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이강은(인덕공고 교사, 비전 코디 대표), 토론은 김승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김위정(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진훈(송의여고 교사, 서울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재정국장)이 맡았다.

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진로 교육은 획일성(학생 특성과 무관하게 일정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방식)과 협소성(교과 전반에 걸친 활동보다는 진로과목 시간이나 진학 지도에 국한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진로교육은 단순히 직업 탐색의 의미를 넘어 학생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는 모든 교과에 걸쳐 진로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현재 세계적으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 비전코디는 그간의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역량을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을 발전시켜왔다.

- 이에 중학교 과정에서 담임과 교과교사의 협업을 통해 여러 교과를 통해 학생의 주요한 역량을 체크리스트 방식을 통해 기록하는 사례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체크리스트 방식을 통해 기록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1) 국가적으로 합의된 넓은 범주의 핵심역량과 역량을 평가할 평가 준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존의 지식 중심의 입시 제도를 탈피하여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3) 학교교육 구성원의 협력적 체제가 필요하다. 4) 핵심역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생활기록부 기록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5) 각 교과에서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와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제기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제시된 역량 간의 중복성과 위계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류가 필요하다.
- 대입 전형의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역량이 있다 없다는 것을 넘어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보다 정교한 도구가 필요하다. 현재는 역량의 발견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대입전형의 자료로 활용될 경우 좀 더 엄격하고 표준화된 방법론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대입과 무관하게 충분히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수업과 평가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모든 교과에 걸쳐 진로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진로교육의 개념이 희석화될 수 있으므로 진로 과목의 범위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교과에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12월 17일

좋은교사운동

발제

이강은 비전코디 대표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방안

1. 문제제기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 실현되고,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진로교육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창의·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단위학교에서는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내실화 하였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며 학교마다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막연한 진로를 꿈꾸는 아이들이 구체적인 진로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주도적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가지게 됨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겠다. 이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인적인프라가 각 학교에 배치가 되고, 진로역량에 따른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이 체험중심으로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청을 비롯한 직업능력개발원의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은 정작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이 제대로 길러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진로교육을 교육과정 속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가. 현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를 살펴보니 단위학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 내 진로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와 담임교사, 교과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교육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단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열정만으로, 내용이 좋은 진로교육 프로그램만으로 아이들의 진로를 풀어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진로에 대한 고민의 단계가 다름에도 한 학급단위의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등 교급계열이 다름에도 동일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자기이해가 충분한 아이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긍정적 자아개념과 태도를 가진 아이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 또한, 가정으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한 아이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 자신의 진로 속에 가치를 발견한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 등 다양한 상황의 아이들이 동일한 집단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패가 좌지우지 될 때가 많다.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학생들이 진로교육에 대해 진부하게 느끼는 것은 프로그램들이 비슷할 뿐 아니라 각 학년마다 구성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뻔한 프로그램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진로교육을 프로그램화 하여 풀어내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번째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진로교육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진로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자각, 탐색, 준비, 유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취학전 교육부터 평생 동안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학습되는 경험의 총체’로,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및 암묵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보면 진학지도나 취업지도, 직업을 찾아가는 직업교육 영역으로만 국한시켜 진로교육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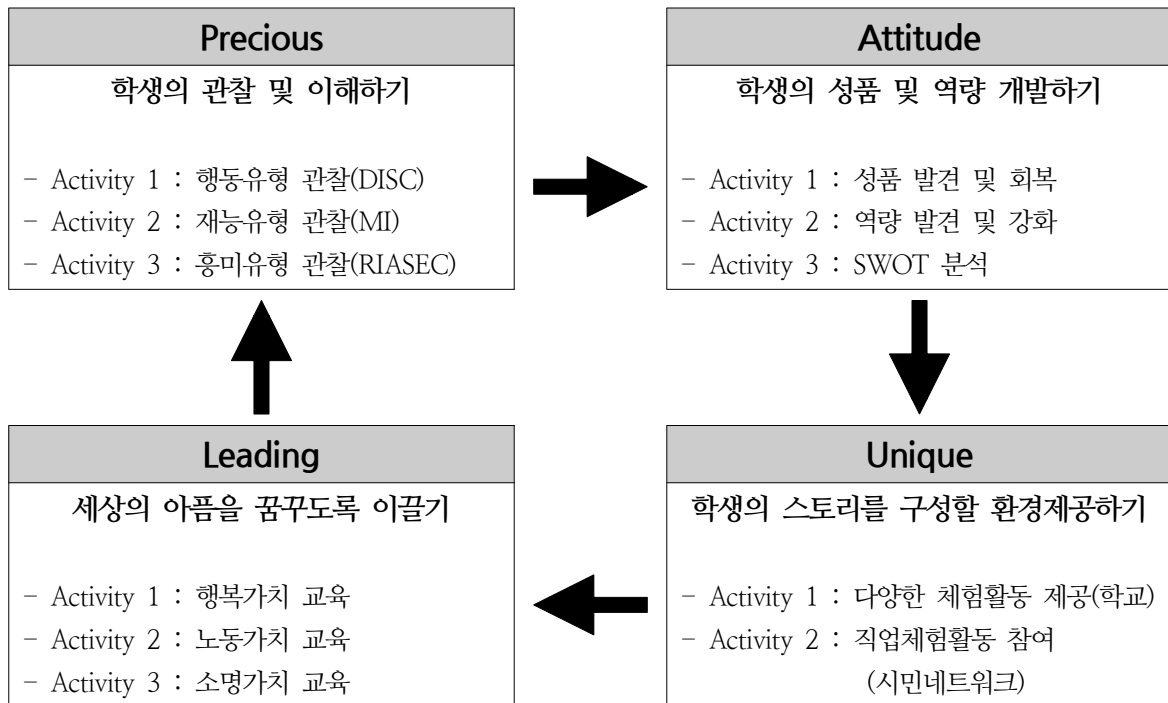
그러다 보니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용 시간 및 활용방법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드시 진로시간을 통해서만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만 진로를 생각해야 하고, 진학과 취업을 성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임에도 진로영역으로 국한되면서 진로교육을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한다.

나. 진로교육에 대한 효과적 활용방안

본 연구회는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를 5년간 지속하면서 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 모델 ‘PAUL전략’을 제시하였다. 단위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 1명이 전교생의 진로를 풀어낸다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그램

위주가 아닌 매일 아이들과 만나는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개별적 진로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이는 소통과 관찰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 ‘PAUL전략’의 단계는 <표1>과 같다.

<표1> PAUL 전략



‘PAUL전략’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가운데 대두되고 있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통한다면 진로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풀어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진로를 잘 준비하는 아이들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자신에게 전문적 역량과 성품이 있음을 발견할 때, 뜻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 속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가치 있는 방향을 설정했을 때 진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준비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의 감추어진 역량이 발견되고 개발된다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진로는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단지 무엇이 되느냐의 초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 안에 진로영역이 따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학생의 진로를 발견해 가는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로교육의 범위는 넓어진다. 단순한 지식을 넘어 변화될 시대의 삶에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

또한 인성, 전공 전문성, 다른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개인의 존엄성, 자신감,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힘,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인지하고 정

의하는 힘 등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교육을 폭넓게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지식을 트레이닝 하는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진로교육으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학교 교육은 교과중심의 교육의 틀 안에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진로교육 요구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왕따, 자살, 학교폭력과 같은 학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진로교육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기존의 교과위주 지식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맥락에서 발휘되는 실천적 지식과 수행을 기반으로, 역량중심 교육을 통해 진로교육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역량중심 교육과정 vs 진로교육

가. 역량의 개념

역량이란 조직의 특유한 강점을 말한다. 이 용어는 원래 직업교육이나 훈련분야, 혹은 성인교육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역량에 관한 논의는 영국을 비롯한 여러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 교육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역량중심교육, 역량중심 교육과정, 역량중심 교육평가 등의 등장은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다. 더구나 1979년에 시작된 OECD 지원의 프로젝트와 그 결과물은 ‘역량’을 직업분야가 아닌 인간 전체의 삶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역량의 문제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질과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시켜 주었으며, 이에 대한 학교교육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소경희, 2007)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은 미래세대의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체로 4~10개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국가 간 상당한 중복이 있다. 즉,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건강하고 통합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더불어 학습을 위해 필요한 사고력과 인지적 역량 및 문제해결력을 포함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대적 조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정보기술의 활용과 국제적 소양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각 나라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역량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2> 같다.

〈표2〉 각국 교육과정에 포함된 핵심역량의 내용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핵심역량의 내용	
영국의 6가지 핵심기능	1) 의사소통 2) 수의 응용 3) 정보기술 4) 타인과의 협력 5) 학습과 수행의 향상 6) 문제해결	
독일 브레멘의 행동역량	1) 개인적 역량 2) 사회적 역량 3) 방법적 역량 4) 기초 학습 역량	
대만의 10가지 핵심역량	1) 자기이해와 잠재능력의 추구 2) 감성과 표현 창의력 3) 진로 개발과 평생학습 4) 의사표현 소통과 공유 5) 존중 배려 팀 작업 6) 문화적 소양과 국제이해 7) 기획 조직 실천 8) 정보기술의 활용 9) 적극적 탐구와 공부 10) 독립적 사고와 문제해결	
캐나다 퀘벡의 범교과적 역량	1) 지적 역량 2) 방법론적 역량 3) 개인적·사회적 역량 4) 의사소통 관련 역량	
뉴질랜드의 5가지 핵심역량	1) 사고력 2) 언어와 상징 텍스트의 활용 3) 자기관리 4) 타인과 관계 맺기 5) 참여와 기여	
호주 빅토리아의 8가지 역량	신체적·개인적·사회적 학습	1) 건강과 체육교육 2) 대인관계 발달 3) 개인적 학습 4) 시민의식
	학문적 학습	5) 의사소통 6) 디자인 창의력과 기술 7) 정보통신기술 8) 사고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의 5가지 핵심역량	1) 정보의 수집, 분석, 조직 능력 2)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환 능력 3) 활동의 계획 및 조직 능력 4)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능력 5) 문제해결력	

〈경기도 교육청(2012), 2012년 경기도 교육과정〉

우리나라에서도 핵심역량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정의들이 있는데, 개인 또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논의 되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보고 중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언급한 이후로 국가 주도의 다양한 역량기반 교육에 관한 연구와 보고가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먼저 미래사회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10개의 핵심역량인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국제 감각, 진로개발능력을 선정발표(이광우 외, 2008)하였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핵심역량을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감 등으로 하였고(최상덕 외, 2011),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습득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력, 정보기술 및 자원의 상호활용능력, 자기관리능력,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임언 외, 2008)

연구기관별 특성에 맞게 핵심역량을 구분해 보면 <표3>과 같다. 아동 청소년 연구는 주로 학교 교육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 직무현장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기관별 특성에 맞게 역량 개념을 핵심역량,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생애능력, 직업기초능력이라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표3> 기관별 대상학령 핵심역량 요소 비교 분석

핵심역량 요소 대상학령	개인										조직					
	자기주도력	기초학습능력	창의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력	수리활용력	자원관리력	정보처리력	기술활용력	진로개발력	협동학습력	의사소통력	대인관계력	문화(조직)이해력	시민의식력	국제사회이해력
초등·중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1	2	3	3	2	3	2	2	3	3	3	3	3	3
고등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1	2	3	3	2	3	2	2	3	3	3	3	3	3
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1	2	3	2	2	3	2	3	3	3	3	3	3	3
총합	9	9	3	6	9	8	6	9	6	7	9	9	9	9	9	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한국교육개발원(KEDI),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로 표시함. 출처 : 강인애, 진선미, 여현숙 2014

〈표3〉의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기관에서 자기주도력, 기초학습능력, 문제해결력, 정보처리력, 협동학습력, 의사소통력, 대인관계력, 문화(조직)이해력, 시민의식력, 국제사회 이해력을 공통적으로 핵심역량요소로 보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핵심역량요소는 각 국가의 특성이나 사회의 변화 정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을 풀어나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진로교육이 개인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자각, 탐색, 준비, 유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취학전 교육부터 평생 동안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학습되는 경험의 총체로 보며 개발되어야 할 역량의 관점과, 미래학습자에게 필요한 역량(또는 핵심역량)을 기르기에 적합하도록 개발되거나 설계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핵심역량의 관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나.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과의 관계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다. 외국 사례의 학교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교사들이 단편적인 정보나 지식의 전달,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탐구학습, 발표학습, 팀 과제, 토론 등과 같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수업방법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기르는데 적절한 방식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수업방법 자체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더불어 학습 내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학생들이 균형잡힌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교육과정 역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교과를 선택하고 교사 중심의 일방적 수업방식이 아닌 학생 중심의 쌍방향 수업참여와 일 체험의 교수학습방법을 학교현장에서 실천하여 개인평생의 일과 삶의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개발한다는 것에서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 주도성과 체험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측면에서도 동질성이 매우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그에 합당한 평가 방법을 요구한다. 평가가 전체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상 교육과정의 성패가 어떤 방식의 평가가 제공될 수 있느냐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맥락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역량, 잠재

력을 평가하는 적합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퀘백의 경우는 100% 수행 평가 체제를 적용하고 있었고, 호주의 경우는 내신 성적과 시험성적을 50%씩 반영하는 졸업자격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장단점을 깊이 파악하게 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써주는 내용이 많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진학지도에 성공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교과부는 창의성과 잠재력을 강조하는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이에 적합한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그 성과가 대학 입학사정관의 핵심활용자료로 제공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3. 비전코디의 전인적 역량 사례 및 제언

본 연구회는 앞에서 설명했던 PAUL전략을 활용하여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학생들의 관찰과 소통을 중심으로 개별적 진로설계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P전략을 구체화하면서 DISC, MI, RIASEC을 통해 개별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동과 재능, 흥미를 발견하고 이해하였으며,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학생들의 성품 발견과 회복, 개인의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A전략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였다.

연구를 하면서 이영숙박사의 12성품론과 경기도 교육청이 선정한 창의지성역량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본 연구회가 연구해 온 진로역량요소를 거의 그대로 담고 있었고 앞서 활용했던 학생들의 관찰요소가 잘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표4>

하지만 12성품론과 경기도 교육청이 선정한 창의지성역량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그 의미의 해석과 적용, 평가가 힘들었다. 그래서 본 연구회는 P전략의 요소를 토대로 7가지 역량을 제시하였다. 7가지 역량은 경기도 교육청이 선정한 창의지성역량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신체운동역량을 추가하고, 역량의 해석과 적용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7가지 역량에 따른 하위요소를 재구성하였다.<표5>

그리고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을 계획하며 학생들을 분석할 수 있고 수업을 마친 후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척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평가척도 체크리스트는 학생들과의 수업을 통해 관찰하며 역량을 체크하는 방

식으로 모든 학교 교육과정 중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무엇보다 장점은 평가척도 체크리스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고 개별 역량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수업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진로교육이 갖고 있는 진학지도 및 취업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앞으로 한 단계 성장할 진로교육의 방향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4〉 역량해석

	전인적 역량	개 념
1	자기주도능력	학생 스스로 학습 또는 주어진 일에 대하여 욕구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적합한 전략을 선택, 실행한 후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과 활동.
2	대인관계능력	타인의 마음, 감정, 느낌을 잘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3	자기관리능력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자기 개발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의미함.
4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문제 상황에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 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하는 장애 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함.
5	의사소통능력	자신의 생각, 의견,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타인의 생각, 의견,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6	문화소양능력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력과 감수성을 길러 감성적 지성, 심미 능력, 창작 능력을 포괄하는 능력을 의미함.
7	신체운동능력	다양한 기계나 기구를 조작하거나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며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활동에 뛰어나며 운동을 비롯한 각종 외부활동에서도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표5〉 역량과 하위요소

역량(관찰)		자기주도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화소양 능력	신체운동 능력
하위요소		리더십	경청	성실성	발문과 의견제시	발표력	작품 이해력	조작능력
		계획성	공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태 도	분석력	창작력	창의적 표현력	순발력
		추진력	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책임감	과제 집착력	경청	수용력	심폐 지구력
		적극적 태도	배려심	규칙준수	완성도	이해력	예술적 감수성	유연성
		도전정신	봉사정신	절제력	응용능력	의사소통 사용능력	다문화 이해력	
검 사	DISC	주도형/ 분석형	관계형/ 안정형	안정형/ 분석형/ 주도형	주도형/ 분석형	관계형/ 주도형/ 안정형	주도형/ 분석형/ 안정형	주도형
	MI	자기성찰/ 논리수학	인간친화/ 언어	자기성찰	논리수학/ 언어	인간친화/ 논리수학/ 언어	음악/공간	신체운동
	RIASE C	실제/기업 /탐구	사회/관습	사회/관습	사회/탐구	사회/관습 /탐구	예술/탐구	실제

가.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의 협업을 통한 활용사례(S중학교)

핵심역량 체크리스트

학생 역량 체크리스트							교과, 담임 체크리스트		
역량(관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화소양 능력	신체운동 능력
하위요소			(1)	경청 (1)	성실성 (1)	발문과 의견제시 (1)	발표력 (1)	작품 이해력 (1)	조작능력 (1)
			계획성 (2)	공감 (2)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2)	분석력 (2)	창작력 (2)	창의적 표현력 (2)	순발력 (2)
			추진력 (3)	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3)	책임감 (3)	과제 집착력 (3)	경청 (3)	수용력 (3)	심폐 지구력 (3)
			적극적 태도 (4)	배려심 (4)	규칙준수 (4)	완성도 (4)	이해력 (4)	예술적 감수성 (4)	유연성 (4)
			도전정신 (5)	봉사정신 (5)	절제력 (5)	응용능력 (5)	의사소통 사용능력 (5)	다문화 이해력 (5)	
번호	이름	교과							
1	김**	국어	-	-	-	-	-	-	-
		수학	-	2,3,4	2,4,5	3	2,3	-	-
		영어1	-	-	2	-	4,5	2,4	-
		영어2	-	-	-	-	-	-	-
		과학	-	-	-	-	-	2,3,4,	1
		담임	-	4	-	-	2	4	-
2	문**	국어	2	-	1,4	3,4	2,3	-	-
		수학	-	1,4	1,2,4,5	3	3	-	-
		영어1	2,5	1,2,4,5	1,2,3,4	-	3,4	-	-
		영어2	2,3,5	1,3	1,2,3,4,5	2,3,4,5	3,4,5	-	-
		과학	2,4	1,2,3,4	1,3,4,5	3,4	3,4	3	-
		담임	2,5	1,3,4,5	1,2,3,4,5	-	3	-	
3	박**	국어	1,4	-	2,4	4	1,4	-	-
		수학	4	1,2,3,4	4,5	-	3	-	-
		영어1	4	2,4	2	-	3	-	-
		영어2	3	4	-	-	-	-	2
		과학	1,2,4,5	1,3	1,3,4,5	1,2,3	1,3,4,5	3	-
		담임	1,2,3,4	-	1,2,3,4,	1,3,4	1,4	1	
4	신**	국어	1,2,4	-	1,2	1,2,3,4	1,4	-	-
		수학	1,4,5	-	1,2,3,4	3,4	3,4	-	-
		영어1	3,4	-	2	1,3,4	-	-	-
		영어2	-	-	-	-	-	-	-
		과학	1,2,3,4,5	1	1,2,3,4,5	1,2,3,4,5	1,3,4	2	1,2
		담임	-	-	-	-	-	-	
5	안**	국어	2	3	1,4	-	3	-	-
		수학	2,4	1,3,5	1,2,3,4,5	1,3,4,5	3,4	-	-
		영어1	3,4	-	1,3	3	-	-	-
		영어2	-	-	-	-	-	-	-
		과학	2	1	1,3,4,5	1,2,3,4	3,4	-	-
		담임	-	1	1,2,3,4	1,2,3,4,5	4	1	1,2
6	양**	국어	4,5	-	2,4	1	1,4	-	-
		수학	1,3,4,5	-	3	3,4,5	1,4	-	-
		영어1	5	-	-	-	-	-	-
		영어2	-	-	-	-	1	-	-
		과학	1,2,3,4,5	1,2,3,4	1,2,3,4	1,2,3,4,5	1,2,3,4,5	2,3	1,2
		담임	1,3,4,5	-	3	2	4	-	1,2,3,4
7	엄**	국어	1,2,4	-	1,2,3,4	1,3	1,3	-	-
		수학	1,2,4	1,2,3	1,2,4,5	3	3	-	-
		영어1	1,3,5	1,5	3,4	-	-	-	-
		영어2	1,2,3,4,5	1,4	1,2,3,4,5	1,2,3,4	1,4,5	1,2,3,5	2,4
		과학	1,2,4	1,2,3,4,5	1,2,3,4,5	1	1,3,5	1,3,4,5	1
		담임	1,2,	2,3,4,5	1,2,3,4,5	1,2,4	1,3,4	-	1,2,3,4
8	우**	국어	-	-	-	-	-	-	-
		수학	-	1	4	-	3	-	-
		영어1	-	-	-	5	-	-	-
		영어2	-	-	-	-	-	-	-
		과학	-	-	3	-	-	-	-
		담임	4	-	2	-	-	-	3,4

나. 교과교사의 활용사례(Y고등학교)

핵심역량 체크리스트

핵심역량 체크리스트							교과목 : 기술	
역량(관찰)		자기주도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화소양 능력	신체운동 능력
하위요소		리더십 (1)	경청 (1)	성실성 (1)	발문과 의견제시 (1)	발표력 (1)	작품 이해력 (1)	조작능력 (1)
		계획성 (2)	공감 (2)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2)	분석력 (2)	창작력 (2)	창의적 표현력 (2)	순발력 (2)
		추진력 (3)	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3)	책임감 (3)	과제 집착력 (3)	경청 (3)	수용력 (3)	심폐 지구력 (3)
		적극적 태도 (4)	배려심 (4)	규칙준수 (4)	완성도 (4)	이해력 (4)	예술적 감수성 (4)	유연성 (4)
		도전정신 (5)	봉사정신 (5)	절제력 (5)	응용능력 (5)	의사소통 사용능력 (5)	다문화 이해력 (5)	-
번호	이름							
1	권**	2, 5	3,4,5	1,3	1,2,4,5	1,4	1,2,5	-
2	김**	5	3	-	-	-	-	2,3,4
3	김**	-	5	1,3,4	3	-	-	-
4	김**	-	1,2,3	-	-	3,4	3	-
5	김**	-	2,3,4,5	-	-	3,4	2,4	-
6	김**	-	4,5	-	2,3,5	-	-	3
7	김**	1,4,5	2	-	1,2,5	1,2,5	-	3
8	김**	-	-	1,4	-	-	-	-
9	김**	-	2,3,5	-	1,	1,4	-	-
10	김**	2	-	1,2,4	2,4,5	-	-	-
11	김**	1,2,5	-	1,3,5	2,3,4	1,4,5	-	-
12	김**	-	2,4,5	-	-	-	2	1,2,3,4
13	박*	1,5	2,3	-	1,2,5	1,2,5	-	-
14	배**	-	2,3,4	-	1,3	-	-	-
15	신**	-	-	1,3,4	-	-	4	-
16	오**	-	-	-	1,2,3	-	-	-
17	윤**	3,4	2,3,4	-	-	1,2	-	-
18	이**	-	2,3,4	-	-	1,2,4	-	2,3,4
19	장**	-	2,4	-	-	1,2	-	-
20	차**	-	-	3,4	1,2	1,4,5	-	2,3,4
21	최**	-	-	1,3,5	2	1,2,4	-	-
22	최**	-	-	1,4,5	-	1,4	-	-
23	최**	-	-	1,3,4	-	1,2	-	-
24	최**	-	-	2,4,5	-	1,2	-	2,3,4

다. 교과교사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활용사례(D고등학교)

핵심역량 체크리스트

		교과목 : 국어					
역량(관찰)	자기주도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화소양 능력	신체운동 능력
하위요소	리더십 (1)	경청 (1)	성실성 (1)	발문과 의견제시 (1)	발표력 (1)	작품 이해력 (1)	조작능력 (1)
	계획성 (2)	공감 (2)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2)	분석력 (2)	창작력 (2)	창의적 표현력 (2)	순발력 (2)
	추진력 (3)	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3)	책임감 (3)	과제 집착력 (3)	경청 (3)	수용력 (3)	심폐 지구력 (3)
	적극적 태도 (4)	배려심 (4)	규칙준수 (4)	완성도 (4)	이해력 (4)	예술적 감수성 (4)	유연성 (4)
	도전정신 (5)	봉사정신 (5)	절제력 (5)	응용능력 (5)	의사소통 사용능력 (5)	다문화 이해력 (5)	.
관련교과활동	성적, 교과서필기, 학습지정리, 3분 스피치, 독서기록장 질문, 교과반장, UCC	편지쓰기, 모둠수업, 토론, UCC, 교과반장	성적, 교과서필기, 학습지정리, 독서기록장, 교과반장	모둠수업, 토론, UCC, 대학로 문제해결하기 활동, 질문	토론,글쓰기, 3분 스피치, 모둠수업, 대학로 문제해결하기 질문, 받아쓰기, 우리말겨루기	시화, UCC, 이미지형상화 편지쓰기	
번호	이름						
1	강**	.	1, 2, 4, 5	.	.	3, 5	5
2	김**	1, 3, 4	1, 2, 4, 5	1	.	3, 5	5
3	김**	.	2	1, 3, 4	1, 2, 3, 4, 5	1, 5	.
4	김**	1, 3, 4, 5	1	1, 2	1, 3	1, 3, 5	4
5	박**	.	2	.	.	2	3, 4
6	박**	2	3, 4
7	박**	.	3, 4, 5	1, 2, 3, 4, 5	.	3, 5	1
8	신**	2	1, 2	1, 2, 4	.	3	.
9	양**	.	.	1	5	2, 5	1, 2
10	오**	.	2	1	1, 5	2, 5	2, 4
11	이**	.	.	.	5	2, 5	2, 4
12	정**	1, 3, 4	.	1, 3	5	2, 5	.
13	최**
14	최**	2	.	1, 2, 3, 4, 5	.	3, 4, 5	1
15	최**	1, 2, 4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3, 4, 5	1, 3, 5
16	홍**	5	4
17	강**	.	4, 5	.	.	5	.
18	김**	5	4
19	김**	5	.
20	김**	.	.	.	1, 5	2, 5	2
21	김**	1	.
22	김**	.	.	.	1, 2, 3, 4, 5	2, 5	4
23	김**	.	.	.	1, 2, 3, 4, 5	5	.
24	마**	.	.	1, 3, 4, 5	3	3, 5	.

역량중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국어교과)

〈1학기〉

교과반장 - 학급 교과반장(2014.03.03.-2014.08.17.)을 하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발표, 자료수집, 정리 등에 솔선수범하면서 리더십, 봉사정신, 발표력, 국어능력이 향상 됨.

성적(85점 이상) - 평소 경청하는 생활습관이 배어 있어 수업시간에도 귀기울여 듣고, 국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탄탄하고 흥미가 많으며,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로 교과성적이 우수함.

갈등 상황에서 대화로 문제 해결하기 활동 - 갈등상황에서 대화의 원리를 준수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남.

편지쓰기(시나리오 속의 인물에게 편지쓰기) - 시나리오 ‘8월의 크리스마스’를 감상하고 작중 인물의 심정을 잘 헤아려 작품 속 여자주인공이 되어 남자주인공에게 쓰는 내용의 편지를 감정이입을 잘하여 씀.

받아쓰기 - 표준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잘 파악하여 교사가 불러주는 비문을 바른 말로 수정하여 쓰는 능력이 탁월함.

설득하는 글쓰기(공정무역에 관하여) - 글쓰기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개요 작성을 한 후, 적합한 문체와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글쓰기를 함.

교내 토론대회 참가 - 평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 있고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정연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 토론대회에 참가하여 ‘동물실험 필요한가’라는 논제에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침.

교내 글짓기대회 참가 - 자신의 체험, 생각, 느낌을 진솔하고 짜임새 있게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 교내 글짓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

이미지 형상화(캘리그래피) -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그림과 문구를 활용하여 개성적으로 형상화하는 능력이 뛰어남.

잘못된 간판, 상표 찾기 - 우리말의 맞춤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식당, 간판, 상표, 방송 등 일상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찾아서 발표하였으며 꾸준히 적용하는 능력이 탁월함.

교과서 필기, 학습지 정리 - 수업시간에 바른 자세와 성실한 태도로 집중을 잘하여 꼼꼼하게 학습필기를 잘 함. 특히 교과서 필기에 있어 중요도를 잘 평정하고 구조화된 필기를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임.

〈2학기〉

교과반장 - 학급 교과반장(2014.09.01.-2015.02.28.)을 하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발표, 자료수집, 정리 등에 솔선수범하면서 리더십, 봉사정신, 발표력, 국어능력이 향상 됨.

우리말 겨루기 - 평소 언어 구사력이 탁월하고 어휘력이 풍부하여 학급내 우리말 겨루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말하기와 쓰기에서 적절한 어휘를 활용해가면서 표현을 잘 함.

3분 스피치 - 자유 주제로 교우들 앞에서 조리 있고 흥미 있게 내용을 전달하여 청중들이 주의를 기울여 듣게 함.

토론(의무투표제 실행해야 하는가) - 교차조사식 토론의 과정을 잘 인지하고 명확한 주장과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인 말하기를 잘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반박하는 능력이 탁월함.

시화전 - 감수성이 풍부하고 시의 개념과 요소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학급내 시화전에서 급우들에게 감동을 줌.

독서기록장 - 독서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고루 읽으며, 다양한 방식의 독후활동을 남겼으며, 상황과 처지에 맞게 독서 계획을 잘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자 노력함.

UCC(공익광고) - 과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조원들과 의견을 잘 조합하였으며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호소력 있는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함.

편지쓰기(세종대왕께) - 한글의 제자원리, 탄생배경, 우수성을 잘 이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대왕께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를 씀.

기사 읽고 주장하는 글쓰기(4분기제 교육과정 시행되어야 하는가) - 신문 기사를 읽고 기사의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표출하는 글쓰기를 잘함.

모둠 수업 - 모둠 수업을 하며 자신이 맡은 부분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임함. 조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원들의 역량을 잘 끌어내는 역할을 잘함.

질문 - 학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호기심이 많아 수업 중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을 통하여 알게 된 바를 확실히 숙지하고 학습과 일상생활에 잘 적용함.

발표 - 발표력이 뛰어나 주어진 과제를 잘 분석하고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 자신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를 잘 전달함.

라. 제언

첫째, 국가적으로 합의된 넓은 범주의 핵심역량과 역량을 평가할 평가 준거를 포함시켜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 이는 창의지성교육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교육이 가능해 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지식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제도의 개편 없이 진행되는 역량중심교육은 기존의 교과지식중심의 교육과 다를 바 없이 왜곡될 수 있다. 역량중심교육을 포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입시와 일제고사이다. 따라서 지식의 적용과 활용이 가능한 역량 중심의 입시제도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된 교육공동체가 구성이 필요하다. 개인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 교과마다 역량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한 학생에 대해 발견된 역량을 함께 나누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교육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핵심역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생활기록부 기록 활성화가 필요하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할 때 핵심역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변별력 없는 수능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평가지표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그림1>

다섯째, 각 교과에서 7가지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강화 연수와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진로교육을 보완하고 아이들의 부족한 역량을 골고루 개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생활기록부 과목별, 개인별 세부능력특기사항 기재

The screenshot displays the 'Personal Detailed Ability and Special Interest' (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form. The left sidebar contains a menu with '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highlighted in red. The main area shows a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학년도' (2014), '과정' (주간), '계열/학년/학과' (일반). Below these are tabs for '세부능력및특기사항' and '특기사항'. The '세부능력및특기사항' tab is active, showing a table with columns: '번호', '과목', '세부능력및특기사항', '등급', and '입력가능' (Byte).

〈참고문헌〉

- 김기현, 김지연, 장근영, 소경희, 김진화, 강영배 (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1(1), 총괄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편].
- 김기현(2009), 청소년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편] ; 김기현 책임연구
- 김기현, 장근영(2010),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 김기현 책임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경기도 교육청(2012), 2012 경기도 교육과정
- 남수정(2011), 고교생의 진로교육의 현황 및 진로역량과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1호 (2011년 11월) pp.283-304
- 미래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 포럼
- 이영대(2013), 미래핵심역량과 진로교육, 교육연구정보 통권 63호 (2013.3) p69-79 강원도교육연구원, 2013.03.30
- 이지연(2010),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제안서
- 이지연 외(2010),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 I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은주(2013), 역량기반 교육의 학교적용 사례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토론1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방안”에 대한 토론

응당 치러야만 하게 된 대학진학으로 인해 학생들은 온통 ‘대학입시’에 매달린 채,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 삶의 가치관 등과는 크게 상관도 없이 진로가 결정되고 있다. 학생들의 일생을 좌우할 중요한 일이지만,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상급학교나 사회생활에 대해 충분하게 공부하고 탐색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진로를 결정하고, 또 일반계고로 갈지 혹은 특성화고(전문계고)로 갈지를 정한다. 고등학교에서의 문과·이과 선택이나 진학할 대학의 학과선택 역시 자신의 특기적성이나 장래희망보다는 주어진 점수에 맞추어 혹은 인기 있는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좋은교사운동의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방안에 대한 발표문은 현장 교원의 학생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대학입시 준비가 아니라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학교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기 때문이다. 사실, 진로교육은 모든 학교교육의 영역에 결부되어 있고 학교교육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고 일과 직업세계를 공부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삶과 어떠한 연관을 갖는가를 알게 하는 교육활동으로써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가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질문은 왜 청소년 개인은 자신의 인생행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정보, 판단능력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까하는 점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사와 학부모는 지금까지 왜 청소년 개인의 인생행로를 결정하기 위한 내실 있는 근거자료 및 정보, 판단능력을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오늘 논의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방안 주제는 이들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현재의 우리 교육이 한 아이의 인생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논의인 것이다. 이강은 대표의 발표문에 많은 공감이 되었으며, 더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생각을 덧붙여 본다.

1. 진로교육이 다시금 새로운 교과위주의 지식 중심교육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학교교육에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요소가 이미 다양하게 흩어져 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에게는 진로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공부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 안에는 진로상담 및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와 교사도 존재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상담할 교사를 딱히 찾거나 만나기가 어렵고, 진로선택과 관련한 정보와 판단을 함께 상의하기도 힘들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입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일부 교과목 및 교과 외 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는 상황도 따지고 보면 학교의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생활 설계 및 상급학교의 선택을 도와주는 제도적 기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로서는 무작정 상급학교 진학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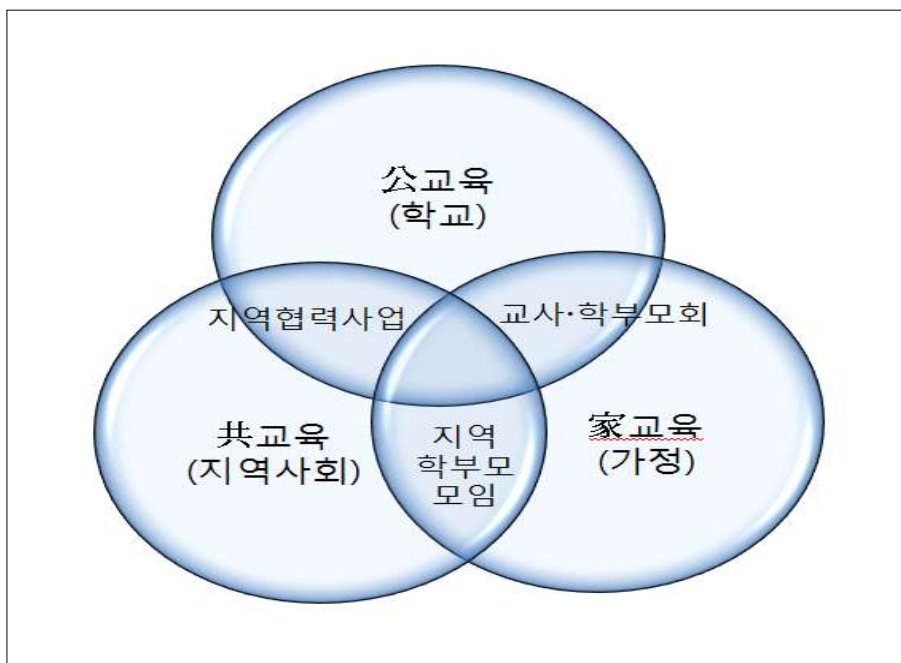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강화되고 있는 진로교육이 발표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진로시간을 통해서만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만 진로를 생각해야 하고, 진학과 취업을 성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면, 진로교육 정책은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진로교육은 진로시간만이 아닌 모든 교과에서, 진로교사만이 아닌 모든 교사가, 진학과 취업을 성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만이 아닌 학생 각자의 처지에 맞는 고유하고 독특한 전략을 수립하는 복합적인 접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¹⁾ 이루어져야 한다.

2.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이 연계되고 본연의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 학습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

1) 진로개발의 개념은 사회적으로는 조직과 국가와 같은 공간 영역을 뛰어넘는(boundaryless) 방향으로 범위가 확장되었고,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보수(임금)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형태로부터 불완전 고용 형태나 학생, 주부 및 자원봉사자 등 무고용의 형태, 나아가 여가 및 학습의 시간까지도 진로개발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노동과 직업에 대한 협소한 관념으로부터 진로개발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김승보 외, 2014)

의사소통, 타인 존중 등 역량 중심의 교육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 이러한 역량을 형성하게 될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접하는 교육을 영역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청소년들은 공식적 교육인 학교교육(公교육)만이 아니라 가정(家교육)에서 부모로부터 훈육 내지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생활이 일어나는 지역사회 관계망(共교육)에서도 많은 학습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지역사회에는 생태, 문화, 역사 등 학습자원과 진로조언 등 교육을 지원하는 인적 관계망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의 구체적 담지체로서 학교 교육(公교육)은 현행 입시위주의 체계로 인해 사교육으로 일컬어지는 학원 및 과외교육에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가정교육 및 지역사회교육 역시 공(公)교육의 과도한 입시위주 체계로 인해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교육조차 그 기능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축소되었다²⁾.

[그림] 청소년이 접하는 교육 영역



한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만나는 영역은 외국의 경우 PTA(Parent-Teacher Associations) 등 학교-가정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자리 잡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공교육(특히 입시준비교육)을 보충하는 사교육 영역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영역은 학교-지역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확장된 교

2) 과거 YMCA 등 사회교육기관과 청소년기관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되어 왔다.

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나, 최근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이나 자유학기제 도입, 진로체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정책 등으로 겨우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긍정적 학습 토양이 될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역시 입시교육과 사교육 부담 등으로 인해 그 토대가 많이 허물어져 있다. 심지어 가정-지역사회의 관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학부모들의 지역 단위 학부모모임조차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³⁾(김승보, 2014).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구축하고 청소년 중심의 진로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식 전달위주의 교육과정을 벗어나 가정과 지역사회를 진정으로 아우르는 진정한 학습 생태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는 발표문에서 제기하는 교내 교육공동체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지만, 현재의 학교 현장 상황과 ‘교육’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몇 가지 교수학습 방법이나 수업프로그램 개선의 논의를 뛰어 넘는 것이다.

3. 역량 중심 및 진로교육 성립의 전제조건은 학생들의 학습량 감축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는 근본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체질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진로설계 구축,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등 여러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지식을 주입’하는데 급급한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결국은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교육체질을 형성하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구현하는데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학생 개인의 ‘진로’의 관점에서 그리고 ‘역량’형성의 관점에서 현재의 교육체질을 반추해보고 문제를 찾고 이로부터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도입 정책은 비단 초중등 12년 과정 중에 한 학기라도 진로탐색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자는 데 정책적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자유로운 진로탐색과 스스로의 진로경로 설정을 도와줄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으로써 초중등 교육의 체질을 형성한다는 데에 그 핵심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좋은교사운동의 가정방문운동이나 수업친구 맺기 운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번 세미나의 발표문에서 정병오선생님은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의미로 정기 지필고사를 없애고 주지 과목 축소 및 예체능, 체험학습, 선택교과 시수 확대, 교사별 평가체제 및 교사와 학교의 교육 기획력 향상 등을 꼽고 있다. 매우 인상적이며 본질적인 평가라 생각된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러한 평가 이면에는 우리 교육이 핵심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다름 아니라 지식전달식 교육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량 부담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영어시험을 위해서 EBS교재의 번역 지문을 외우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교육이 어디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명확하다.

〈참고문헌〉

- 김승보 외(2013), 초중등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승보 외(2014), 진로정보의 현장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미발간)
 김승보(2014),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현실과 과제, 한국학부모학회(12. 5) 발표문.

토론2

김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방안’에 대한 토론문

○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요구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 등은 기존의 직업매치식의 진로 교육에서 진로개발역량을 길러주는 진로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탐색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진로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즉, 진로교육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이와 함께 진로교육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들을 키우는 데도 기여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중심교육과 진로교육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함.

○ 연구의 의의

- 이 연구는 진로역량과 하위요소를 구체화하고, 수업을 통해 이러한 역량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해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수업과 평가방법 개발의 미흡이라는 점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연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1. 학생부 평가혁신의 방안으로 대입제도에 활용

- 현재 입사관 전형(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이 일부 평가 받고는 있으나 주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과 활동 관련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이것이 대입에 반영될 루트는 거의 없음.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 활동과 관련된 학생들의 역량을 일부 기재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몇몇 우수한 학생들만 기록해주는 방식으로 제한적임.
- 이와 관련해서 이 연구의 사례는 교과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기재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이러한 시도들을 확대하고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대입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들을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2. 경기도 평가혁신 방안과 연계

- 경기도에서는 지필고사에 논서술형 문항 확대, 정의적 능력 평가 도입, 수행평가 내실화 등의 평가혁신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음.
- 이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정의적 능력 평가와 수행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
- 정의적 능력 평가는 정의적 능력을 수업 목표로 설정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전에는 학생들의 해당 능력 수준 또는 주제에 대한 흥미 등을 파악하거나 수업 속에서 평가를 통해서 수업에 대한 피드백,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진로지도 등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고함(경기도교육청(2013) 참고).
- 정의적 능력 평가 사례들을 참고하여 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 체크리스트는 수행평가의 평가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수행평가 시 학생들의 역량을 세분화하여 평가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장점들을 파악할 수 있음.

○ 아쉬운 점, 보완해야 할 점

1. 수업설계와 평가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역량중심 교육에 있어서 수업과 평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 이 연구에서도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을 계획하며 학생들을 분석할 수 있고 수업을 마친 후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척도 체크리스트를 개발’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례에서는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수업은 어떻게 설계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보여주면 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2. 성취기준과 수준에 대한 고민 필요

- 이 체크리스트의 방식은 역량의 하위요소들의 유무를 체크하는 방식인 듯.
- 교사에 따라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궁금함.
-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성취기준과 수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해외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결과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러한 방식은 국가단위에서 역량의 성취목표와 성취기준을 정교화하여 핵심역량의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지 명확히 하는 것으로, 단위학교에서는 역량 평가를 학생 성적표에 포함하고 피드백 해주는 것 등으로 나타남(이근호 외, 2013; 소경희, 2013).

3.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 학생들의 역량을 체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수업에 피드백하거나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
- 학생들에게 자신의 역량과 그와 관련되어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적표와 같은 평가보고 양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자기평가, 동료평가, 프로파일 형태의 성적표, 성장참조형 평가 등 다양한 평가보고 양식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평가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학습과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2013), *중등 정의적 능력 평가 예시자료*
 소경희 외(2013), 『주요국의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연구』, 교육부.
 이근호 외(2013),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3

김진훈 송의여자고등학교 교사

토 론 문

발제를 통한 문제의식은 매우 적절하다. 현재의 진로교육은 걸음마 단계를 넘어 성장기로 향하고 있다. 학교마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 따라 진로교육에 붓물이 터지고 있다. 하지만, 진로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거나 단발성 행사로는 의미있는 진로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진로교육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수업에서, 학급교실에서 여러 교사가 진로교육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역량에 대한 개념정의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발제자는 상세하게 7개 핵심역량에 대해 34개의 하위요소로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다소 많다고 여겨진다. 항목 간 중첩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정청은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중복되어 있다. 핵심역량 간의 위계도 자기주도와 자기관리가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또한 교실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의 수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 지표를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 번거롭게 여겨지면 그만큼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2013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 및 종합의견’을 작성하는 지침이 수정되었을 때 의도했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다. 종합의견을 작성할 때 [나눔], [배려], [협동], [규칙준수] 등과 같이 소재목을 붙여주어야 하는 것인데 소재목을 찾는 것이 또하나의 일이 되어 학생에 대한 자유로운 서술을 방해하고 형식적인 제목 갖다 붙이기로 선생님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다.

1. 행동발달 및 특기사항 지침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나 학력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특별활동 상황, 교과 학습 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나. 특히 학생의 인성관련내용은 핵심인성요소를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핵심인성요소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다. 핵심인성요소는 기재요령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예) (배려)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로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동을 도와주었으며,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등 또래 상담자로 주2회 활동함.

라. '성실한 학생임', '착한 학생임' 등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입력하지 않음.

마. 장점과 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은 변화 가능성과 함께 입력

2. 주요 인성 덕목(예)

감사, 배려, 공정, 성실, 창의성, 열정, 신뢰, 끈기, 협동, 소신, 관용, 친절, 봉사, 책임감, 겸손, 정리정돈, 존중, 관계 지향, 규칙준수

학교현장에 효과적으로 파급될 만한 지표 중에서 대교협 추천서 공통양식은 적절한 참고가 될 수 있다.

1. 지원자의 학업 관련 영역에 대해 "V"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 불가'를 선택)

평가 항목	평가 대상			매우 우수함	우수함	보통	미흡	평가 불가
	3학년 전체	계열 전체	학급 전체					
1) 대한 목표의식과 노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수업 참여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원자의 학업 관련 평가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25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술 가능).

2.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 관계에 대하여 "V"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 불가'를 선택)

평가 항목	매우 우수함	우수함	보통	미흡	평가 불가
1) 책임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성실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리더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협동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나눔과 배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 관계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25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술 가능).

3.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대교협 공통양식의 추천서 지표를 상시적인 교실상황과 수업에 관찰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교사는 대입지원에 직접적인 연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역량수준을 평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역량의 세부 과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역량체계(NQF) 서비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NCS는 학벌사회를 넘어 역량중심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http://www.ncs.go.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직무분야별로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구체적인 직무역량을 도출하고, 직무역량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상세한 과정을 검색할 수 있다. 방대한 직무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체계적으로 과업을 제시하고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이다.

NCS · 학습모듈 검색

홈 > NCS · 학습모듈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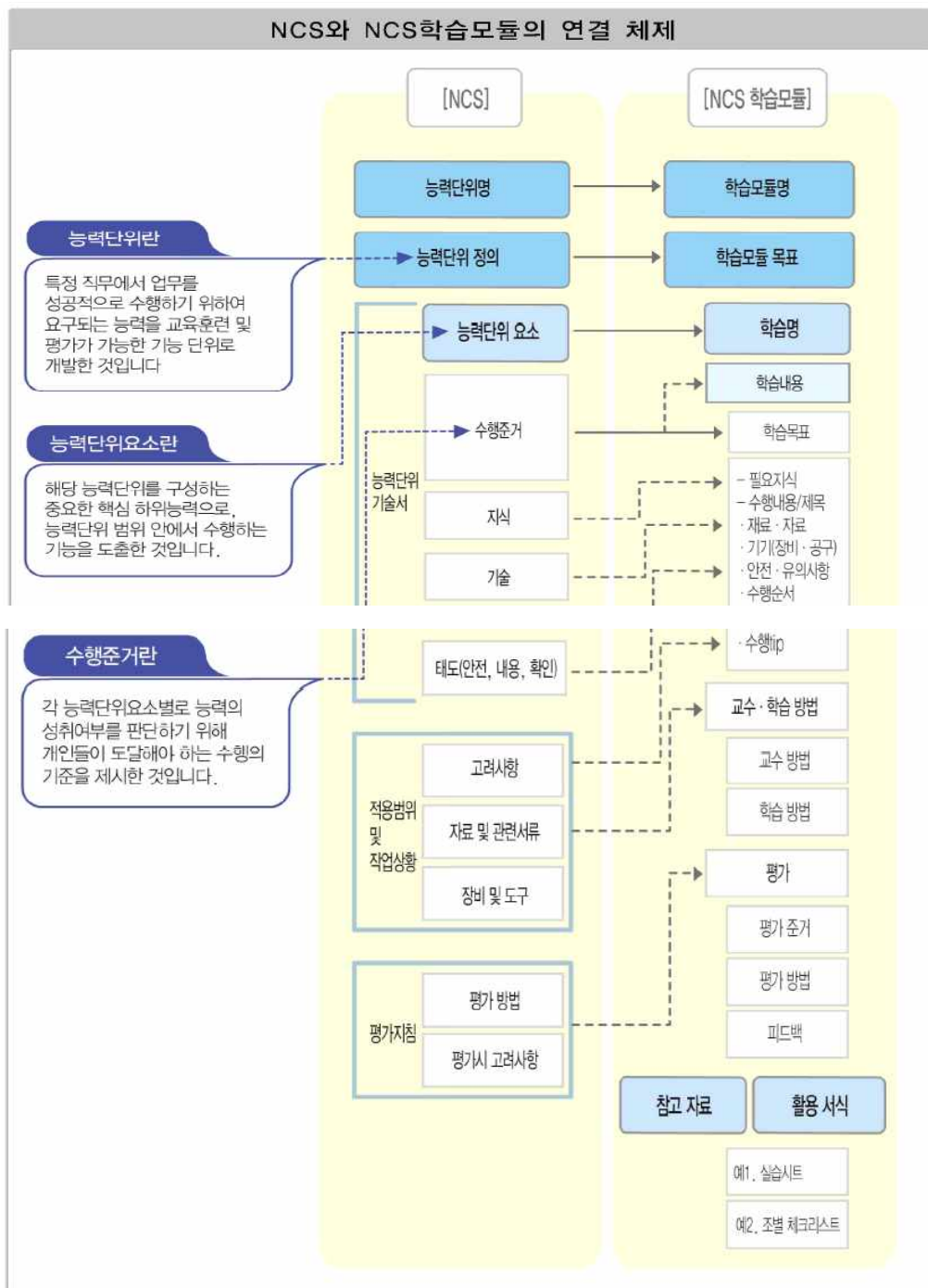
NCS 분류체계를 확인하시려면 우측의 “분류체계 보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NCS 신규 및 보완 개발 추진으로 분류체계와 상이하게 서비스 되는 분야가 일부 있습니다.

분류체계 보기

2002~2012년간 개발된 구 버전의 NCS 콘텐츠는 기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의 NCS 콘텐츠를 확인하시려면 우측의 “기존 홈페이지 가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홈페이지 가기

분야별 검색	0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사무	03 금융/보험	04 교육/자연	05 법률/경찰	06 보건/의료	07 사회복지·종교	08 문화예술·디자인
키워드검색	09 운전·운송	10 영업판매	11 경비·청소	12 숙박·여행·오락	13 음식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16 재료
코드검색	17 화학	18 섬유·의복	19 전기전자	20 정보통신	21 식품·가공	22 인쇄·목재·가구	23 환경·에너지	24 농림어업



NCS의 강점은 직무능력별로 구체적인 수행준거를 설정하고 평가를 학습내용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진로교육에서도 이와 같이 진로계열별로 보다 세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계열별 수행준거와 학습내용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녹취록

사회 :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자 : 이강은(비전코디 대표)

토론자 : 김승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김위정(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훈(송의여자고등학교 교사)

1. 이강은 비전코디대표 발제

2.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토론

3. 김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과거의 직업매치식 진로교육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보자면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가나 교육과정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겠고 실재가 없다는 점을 선생님들이 비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주신 것 같아 그 부분도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잘 활용해서 대입제도에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생각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입학사정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학교에서의 변화가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혁신에서는 여전히 대입제도라는 것이 많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 지점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입사관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주로 비교과활동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고 교과활동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부 생태계에서 보면 학생들의 교과활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기재하게 되어있지만 몇몇 우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기술해줍니다. 성적중심으로 기술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혁신과 관련된 것들을 대입제도에 도입을 해서 수업혁신까지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심스러웠는데, 이 발표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단초를 주신 것 같아서 이 연구가 반갑고,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여러 가지 평가혁신 방안을 도입해서 학생부 교과전형까지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바꿔가도록 활용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평가혁신을 노력하고 연계하면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가혁신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필고사에 논, 서술 문항을 확대 도입했고, 논술문항도 모든 교과에 평가를 하도록 했고, 정의적인 능력평가도 하도록 했는데, 정의적 평가와 관련한 평가방안들을 개발해서 사례집도 보급을 했고, 수행평가 내실화도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체크리스트도 정의적 평가와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정의적 평가라 하면 수업에서 교과를 중심으로 성취수준이 설정되게 되는데 설계할 때 보통 공감능력이라던가 협동능력, 흥미나 태도들을 수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을 통해 수업을 설계, 평가를 하도록 하는 정의적 능력 평가를 하도록 채택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체크리스트들은 정의적 능력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다양한 평가기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평가 할 때 학생들의 역량을 세분화해서 평가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한 다음 그것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면 다양한 학생들의 능력이나 장점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하다가 선생님들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비판을 받는 부분 중 하나가 역량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총체적인 변화로 봐야 하는데 능력을 분절화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능력을 세분화해서 쪼개어 평가를 했더니 학생들의 특징, 장점이 잘 드러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례 제시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의 능력들을 피드백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수업설계하고 평가를 함께 제시하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보고서만 보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과 평가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있고 그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려면 수업 자체가 바뀌어야지 수업 내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하셔서 이렇게 평가했는지 자세하게 나오면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취수준,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인데 역량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신 것 같은데, 여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발견하신 것 같아서 평가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선생님마다 학생들을 평가할 때 평가기재가 다 다를 텐데, 이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수업도 달라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대입하고 연계되면 객관성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신 책무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평가기준이나 수준을 국가수준에서 정교화해서 제시하고 있고 그걸 받아서 학교에선 학교수준에서 지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진로탐색과 관련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성적표가 있는데 자기평가, 동료평가, 성장참조, 프로파일 방식의 성적표 등 능력들을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성적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특징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피드백하는 과정까지 같이 고민하면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 김진훈 승의여고 진로진학상담교사 토론

현재 진로교육은 걸음마 단계를 넘어 성장기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이 붓물 터지듯 확대되고 있어요. 하지만 진로교사의 역량에만 의존하거나 행사중심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 진로교육이 의미 있게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지속가능한 진로교육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역량중심 교육과정, 교과수업 안에서의 진로의 연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발제자는 특히 핵심역량을 하위요소로 세분화해서 교과와 수업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공감도 되면서도 한편 현실적으로 수업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활용하기에는 다소 항목이 많고, 평가하는데 걸리는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 항목 간 명확한 배타성을 갖지 않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핵심 역량 간의 위계와 하위요소들을 적절하게 현실성 있게 간소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학교현장 생활기록부에서 단순 나열보다 제목을 달아서 나눔, 배려, 협동, 규칙준수 같은 것을 달아보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시행초기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자유

롭게 서술하던 것을 제목을 달면서 방해가 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대입추천서에 연결할지 고등학교의 경우 당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30% 가까이 육박하면서 학교에선 아주 중요한 전형이 되었어요. 추천서 항목에도 자유로운 기술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한 지표를 평가항목과 수준으로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서에 나와 있는 평가항목과 체크정도면 선생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이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 큰 거부감이 없을 정도의 개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평가역량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하위요소가 이렇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보다 실제 이 요소가 계획된 그 수업 안에서 녹아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수업 안에서 조장하고 연결할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경우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국가에서 학벌위주의 과잉체제를 완화하고 직무에 해당되는 정확한 능력단위를 뽑아내서 능력단위를 교육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어요. 자료에 NCS능력단위를 세부적으로 나열한 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로 가는데, 경영 회계사무의 대분류 안에 금융 분야 중분류 그중에서도 은행전산관리로의 세 분류로 들어가는 직무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수행준거를 만들고 수행준거를 어떻게 학습에서 이어갈 것인가 하는 학습모듈을 만들어놓고 관심 있는 직무를 클릭하면 그 직무의 수행준거를 체계적으로 잘 학습할 수 있는 시트지가 나옵니다. 이 시트지대로 교육을 하면 이 직무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자료인데 방대한 자료를 잘 정리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처럼 우리가 지표나 역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구체적인 수업방식, 평가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질의응답

김진우: 토론에서 나온 질문과 의견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강은: 발전해야 할 방향들에 대한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을 했던 것은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편협할 수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다 보니 그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어 지면 인문계고등학교 아이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

학교로 넘어오면서 한 번씩은 상처를 받고 온 아이들이고, 그 상태에서 어떤 것으로 꿈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면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교육을 했을 때, 상처를 받고 뭘 못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하면서 자기들이 잘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자신의 방향들을 설정해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의 감추어져있던, 상처 난 부분들을 감싸줬을 때 아이들이 회복되어진 관점으로 봤고,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문제는 수업 속에서도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진로적인 마인드 속에서 교과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접근을 하면 아이들의 문제를 잘 관찰하고 효과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험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지?’ 하는 고민은 되고 있고, 자유학기제는 좋은데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아이들을 어느 기관에서 받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활동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초실력을 가지고 두 달 동안의 프로젝트수업이란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죠. 내 교과에서 실제적으로 모듈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내면서 만들어내는데 점수로 발견할 수 없는 아이들의 발표력, 문제해결력, 협력 능력을 발견하는 것을 보면서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아이들이 힘을 내면서 또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량중심교육과정은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수업도 필요하긴 한데 또 다른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수업도 일반 인문교과나 그 교과에서 이런 수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점수화되어진 것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것들은 선생님들의 사례에서 이야기했던 적용활동들에서 아이들이 어떤 역량이 있는지 추출해낼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우: 김위정 연구위원이 역량이 있냐 없냐 이것을 포착 했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차원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역량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의 답을 두 분 사례 발표자께서 말씀해주셔도 좋겠고, 또 하나는 너무 복잡하지 않는가, 평가개수도 그렇고 서술하는 내용들이 복잡해서 교사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은: 실질적으로 역량의 유무를 체크하는 것이 연구의 가장 기본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모듈화 시켜서 이런 수업을 통해 이런 것을 발견하십시오 하는 일반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인 내용을 접목시키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마다 발견할 수 있는 방식들은 다 다르다고 봤을 때 전반적인 모든 아이들에 대한 부분보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도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하고자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무를 체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 초점인 면에서는 초창기라고 봅니다.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해야할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복잡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아까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이야기 하셨는데, 겹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대인관계능력이라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많이 겹칩니다. 그중에도 경청을 보면 대인관계능력에서도 경청이 중요하고 의사소통능력도 경청이 중요한데,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인관계능력에서 경청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의사소통능력에서 경청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과 약간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에 있어서 보면 ‘평소 경청하는 생활습관이 배어있어 수업시간에도 귀를 기울여 듣고’ 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과성향이 강하고 이런 친구는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평소 경청하는 생활습관을 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경청을 하지요. 이런 부분에서 구분할 필요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설계와 평가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된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배움 중심 교육을 많이 강조하는데, 매 수업 지도안 자체가 배움 중심이라면 아이들의 활동과 아이들 중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걸 여기에 제시할 수는 없었고, 매 순간이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석: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이야기할 때 다른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 의사소통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선생님이 이해한 것에 대한 직무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의사소통으로 봤고 대인관계능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관계들 속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약간 구분된 부분은 있습니다.

임병호: 김위정위원님이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애매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리더십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수업계획, 성취수준이 제시되어야만 있다 없다를 체크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극복했던 방법은 여러 교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리더십을 체크하지 못했어도 다른 교사와 같이 체크하고 그렇게 되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공동체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제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교사공동체가 한 아이와 그 진로를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뿐 아니라 부모도 모여야 하고 지역도 함께 힘써야 합니다. 김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기준이 많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많을수록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체크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개수가 적으면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주도능력에 리더십, 계획성만 있고 추진력, 적극적인 태도가 없었다면 어디에 체크해야할지 더 애매한 경우가 발생 합니다.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지만 체크리스트를 수정해가는 과정 중에 현재는 다섯 가지로만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줄여나가야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더 넣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지명: 이번에 했던 체크는 교과 간 1회성 체크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을 해 보면서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기준이 조금씩 맞춰져가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어떤 선생님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는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을 선생님들이 갖게 되었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방식이 나만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선생님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이들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이러한 역량들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재구성해서 수업모형을 도입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김진우: 평가한 결과를 선생님들이 다 나누어서 보나요?

류지명: 개괄적으로 질문지를 드려서 받고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동혁: 16쪽에 학생들 중 한 학생은 모든 항목에서 좋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학생은 한개만 역량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것은 핵심역량에서 격차가 발생합니다. 대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어떤 학생은 잘하는데 어떤 학생은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정해석: 이것은 학생들 본인 것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생은 운동부입니다. 자다가도 자기생각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언어능력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뭘 하든 그런 단서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정동혁: 모범학생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성적처럼 그런 학생들이 높은 것인지 점수는 낮지만 잠재적인 핵심역량이 정말 있는 친구들이 체크가 많이 된 것이지요?

정해석: 아무래도 국어영역에 관한 부분이라서 국어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이경식: 지금 하신 제언들이 학생들의 역량을 체크하고 개별 역량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수업설계를 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과부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서 대학입시사정관에 핵심활용자료로 연계가능하다는 식으로 되어 진다면, 정동혁선생님이 말씀하신 16쪽에 나온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활용능력이 생기부에 있는 것인데 다 우수하게 체크된 학생과 한 항목에만 체크된 학생을 봤을 때는 진로와 대학입시사정을 연계해서 생각했을 때 내가 대학입시사정관계자라면 당연히 모두 잘한 학생이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또 하나의 스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재다능한 학생과 좀 의지가 박약하다던가 활동이 소극적이라던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요소의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세부사항에서 낮게 나온 학생들은 또 하나의 학습처럼 생각되어져서 3분 스피치 교육을 따로 받든가 독서교육을 따로 받든가 하는 경우와, 또 다른 경우는 이것을 협의체로 하든 어떤 형식

으로 하든 교사의 업무량 증가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짐과 동시에 교사의 개인적인 역량과 개인적인 기록에 대한 차이가 있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 두 배 세배의 업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부족한 학생의 개선에 대해선 이해가 되지만 인사관제에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도용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보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진우: 끌어올리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대입전형의 요소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교사의 업무량증가에 관한 부분에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정해석: 광고 중에 스펙중심의 면접이 아니라 역량중심의 면접이라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역량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 6가지 영역 중에 쓰기영역이 하나도 안 되고 말하기 교육이 하나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과서 자체에는 6가지 영역이 매우 잘 녹아들어가 있지만 교사가 적용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이론만 배우고 차보지 않는 것이죠.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적용과 실제인데 선생님들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보: 진단이 좀 다릅니다. 교사들이 왜 하지 않을까요? 교육과정이 훌륭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게 뻑뻑한 게 문제이긴 해도 교육과정 자체는 잘 짜여져 있는데 핵심은 대학 고등교육입니다. 대학을 모든 사람이 다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 지금 중등교육의 평가를 다 대학입시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교사들이 평가를 하고 교육을 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체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평가를 할 수 있는 약간의 틈이라도 교사에게 주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교육을 우리가 과목에서 평가를 안 하는 이유가 주변부 과목이어서가 아니고 진로에 있어서 뭔가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대입트랙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교육도 있고 가정교육도 있다는 말은 있는데, 학교교육이 전부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사교육이 창궐하고 아이들이 잠식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사의 역할이 평가를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구제할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등 단계에 맞게끔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수 있

는 교사상이 훨씬 더 중요한데 입학사정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평가하면 더 반영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사소한 부분입니다. 학교교육에 꼭 필요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나를 고민해볼 때 순서가 바뀌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숨겨있는 진로잠재력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가를 먼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본 다음에 평가를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장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지만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평가지침을 만들면 금방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부적인 측면이고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라고 하면 연계 방향에서 핵심이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꼬집어낼 것인지 충분히 이야기가 된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우: 대입전형의 활용가능성이 주된 논의는 아니고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담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어떻게 개혁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입장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위정: 뭐든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대입제도와 연결되는 순간 왜곡됩니다. 하지만 대입제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현실적인 비전은 수능이 점수로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세웠다면 역량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보는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적이 높은 아이들만 역량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다차원적인 능력들을 조망해줄 수 있는 방법인데, 대입제도와 연결되는 순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입제도와 연결되면 왜곡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측면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줘야하는지 같이 고민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적인 학력개념들을 어떻게 모색해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학교교육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허은영: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논의하는 것인데 진로교육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내리 하는데 아이들은 식상해지고 선생님들은 뭘 가

르쳐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1세기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자는 시각인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추려진 역량들이 다 진로교육이 아니라 학교교육차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진로교육이어야 한다고 말한 학자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량중심으로 가되 그것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진로교육과 조금 더 직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뽑아내고 다 끌고 가자면 우선순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발등에 불이 먼지입니다.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사이버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정신과 의사가 자기 희망이고 이과를 갈 것인데 자신이 의대에 가기엔 성적이 좀 부족해서 상담전문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문과다. 그래서 문과로 교차지원을 하면 불리하냐? 얼마나 불리하냐? 또 심리학과와 상담심리학과의 차이점은 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발등의 불도 다루어 주는 것도 교사로서 외면해서는 안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역량중심으로 가되 좀 더 진로교육과 직결되는 역량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교사를 연수시키고 이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김진우: 진로진학과목만이 대상은 아닐 것인데, 과목이라는 제도가 들어와 있고, 역량개념과 진로과목이라면 과목일 수 있고 진로지도라면 진로지도에 특화된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김진훈 선생님은 이런 문제의식을 어떻게 보시는가요?

김진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진로교육이 교과과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각 교과에서도 제시된 역량전반을 다 다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과목 같은 경우 사회적 역량이라는 지표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고 문화적 소양이 해당되는 지표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로가 각 교과에서 세밀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라는 독립된 과목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고민을 주는 개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교사가 배움이라는 것이 삶으로 남는 것만이 배운 것이라는 지식과 앎의 고민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이 진로와 교육과정, 교과와의 흐름상에서 중요한 주제

를 붙잡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우: 진로과목을 만들고 진로교사를 배치하게 된 제도적 취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승보: ‘교육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대입제도와 연계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기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의문이 있습니다. 진로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국어시간에 말하기 경험을 하고 그 몰입에 관한 경험을 쌓고 커리어가 되면 그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진학을 위한 무엇인가가 있는 게 아니라 17, 18살짜리 아이가 축제를 기획했다면 축제를 기획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경력인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시험이든 수능이든 대학교 갈 수 있는 자인가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새롭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런 평가구조로 계속 간다면 대입제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대입제도만큼 자주 바뀔 게 없는데 우리교육만큼 안 바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딜레마고 아이러니인데 그런 측면에서 진로교육은 학교 전체가 아이들의 경력을 지원하는 체제로 갖추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와 프로젝트수업에서 재능이 발굴되고 발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과목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진로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라는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진로교사의 본질적인 미션은 학교의 진로교육 생태계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과교사로 꼬리표를 달았기 때문에 10시간정도는 교과수업을 해야 다른 교사들과 대등한 역할분담이 되겠다 해서 수업을 줄여서 가는 과정인데 진로라는 것은 한 교과로 해소될 문제도 아니고 교과가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영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들을 보는 눈이 교사들에게 갖추어져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역량을 보는 눈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에 맞춰 자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주자, 그런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자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대입제도 속에서 자꾸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문제는 지금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역량이나 진로교육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우: 현실에 대한 판단은 어떠신지요?

김승보: 핵심은 진로라는 게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로는 일 또는 활동, 생활,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진로를 이해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삶은 모든 교과에 스며들어야 하는 거고, 그 삶의 부분을 우리의 중등교육체제가 다 교과위주기 때문에 그것을 아우르는 삶의 중심자리로써 하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진로교육과 진로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완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초창기 여러 오해들로 쉬러가는 진로교사의 분위기도 있어서 진로교육 자체가 긴장도를 잃은 측면이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 파장이 있긴 하지만 진로교육의 핵심과제는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핵심이 있는 것 같고, 발표문의 핵심 취지도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나와 주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토론회들이 의미 있는 것 같고, 교사의 교육기획력이 살아나려면 교사의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로교육이 모든 교사에게 스며들어야 하는 기초적인 역량이 고 교사에 의한 자율성이 주어지면 아이들은 당연히 역량이 형성이 되고 진로지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우: 제도의 취지가 학교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진로진학교사의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김진훈: 여러 학교의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초기단계는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여러 일들을 하지만 학교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반납하고 진로교사를 포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상담 위주로 가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진학위주로 하는 선생님, 직업체험이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진로선생님 한분 한분의 개성이 있지만 성공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의 입학사정관제,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상담교사가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도로 발전되어간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많은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면접 없이 선발하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생각과 이 출구가 안정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지식위주, 문제풀이위주, 단순한 학교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론도 있는 상황이어서 정교하게 자리를 잡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병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진로를 잡아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죠. 수업도 중요하지만 교사는 상담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한 가지 측면인데,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상담을 잘 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현직 교사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진로를 잘 선별해줘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맞는 일을 해 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제공해주면 좋을까요? 아이들을 상담할 때 이런 자료들이 제공되면 효과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대입 협의회를 했는데 대학 측의 입장도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생기부에 잘 작성해주면 좋겠다, 그게 신뢰가 되어야지만 학생들을 잘 선별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 잘 써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수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입제도와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것 같고 꼭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학생들 역량을 잘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전문가분들이 보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영훈: NCS가 역량평가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경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스킬이 아니라 자질의 문제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직능중심의 교육으로 변질이 되어 인문계와 특성화고를 가르치는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로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녹아들어야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성찬: 역량별 체크리스트를 표시하려면 그 학생을 어느 정도 알아야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110명을 지도하는데 이 많은 학생들의 상세한 상황을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체크를 하는 게 좋을지, 내성적인 아이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파악하기 어렵고, 교사도 바쁜데 원투원해서 체크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진우: 두 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발언 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훈: NCS를 제시한 것은 그 능력이 학습이랑 잘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과정이 나온 구체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따왔던 것입니다. 물론 스킬과 자질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교과에서 스킬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인문계고등학교에선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과에서 문제풀이에만 한정되어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역량이 구체적인 학습목표, 행동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과목별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항목이 많은 것과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시고 계신 것을 감안할 때 평가지표가 다섯 가지가 넘으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목수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잡혀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김승보: 자유학기센터가 교수학습이나 교육과정 위주라면 직능원에서는 진로나 체험활동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서포트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로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진로라는 것이 커리어를 번역하다보니 자꾸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오늘의 행복을 유보하자는 관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현재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학 이후의 직업의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주변에서 몰아가서 프로파일러라고 이야기하는 이면에는 성적에 대한 좌절감이 있는데,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성적이 안되니까 그 비슷한 프로파일러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즉 현재는 희생을 하더라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정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두려운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교사들이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가 조금 더 되는데 그 분들이 있다는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진로교육의 기획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참 많은데 주변에서 오해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친구에게 프로파일러에 대해 네가 고민할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행복한 일이 뭐냐는 질문을 하는 것만큼 겹이 있습니다. 진로교사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미래의 학교교육을 헤쳐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자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완이지만 지금 이루어놓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6. 마무리

이강은: 진로교육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점은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다 풀어내고 이를 위해 진로적 마인드를 구축하는 것이 첫째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진로는 삶의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대학입시와 결합되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제도화되고 정책화되어지면 교사의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지만 비전코디가 계속 가지고 가려는 목적과 방향 안에서 정책푸시는 분들은 푸시되 아이들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프리즘을 통해서 아이들 삶의 부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교과교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교과에서 수업을 통해 발견했던 역량들의 소스를 가지고 진로진학상담교사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고, 담임교사가 발견했던 요소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키를 가지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이러한 역량들에 의해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제시해 준다면 학교라는 교육공동체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 발행인 : 김진우, 임종화
- 편집인 : 김민정
- 발행일 : 2015.03.06
- 발행처 : 좋은교사운동 문서출판부